

2024-07-01 (2024-26호)

07월 0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개방하는 외환시장과 겹겹이 쌓인 변동성 재료들

서울, 7월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달러/원 환율은 대외여건 전개 상황 따라 녹록지 않은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370-1,400원이다.

미국 물가지표 둔화 확인으로 달러는 소폭 밀렸지만, 강달러에 대한 방향 선회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유로, 엔, 위안 등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 통화는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바꿀 조짐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반기말 무거운 수급에 원화 약세압력은 잠시 꺾였다. 하지만, 반기말 이후에도 이 같은 무거운 수급이 유지될 지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확신은 깊지 않다. 오히려 반기말에 급하게 몰려나온 수급을 보면서 당분간 오피 쪽 수급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오늘부터 한국 외환시장은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외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펼쳐진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 개방 초반 외환당국의 세밀한 시장 관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연장시간 대 얇은 시장 유동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큰 시장 변화에 따른 높은 긴장감 속 국내 외환시장은 이번 주 만만치 않은 시장 재료들을 소화해야 한다.

당국 개입 경계감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엔 가치와 관리가 되는 듯하지만 약세 추세를 강화하는 위안은 원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다.

굳건한 달러가 꺾일 경제지표들이 뒷받침될 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어떻게 형성될 지도 변수다. 유럽 선거 결과에 따른 유로 반응과 이에 따른 달러 반작용이 주 초반 달러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다.

주 후반에 나올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가 핵심 변수지만 이에 앞서 나올 고용시장 상황을 알리는 여러 지표에 따라 국내의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로이터 사전조사에서는 미국 6월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증가해 5월 27만2,000명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에는 시장 예상을 훌쩍 넘는 서프라이즈 결과로 시장을 충격에 몰아넣은 바 있다.

주 초에는 주요국들의 제조업지표가 발표되는데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해석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한, 미국 6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록도 공개된다. 아울러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뒤따를 예정인 가운데 특히, ECB 중앙은행 포럼 패널 토론에 참석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일정으로는 6월 수출입동향(잠정), 6월 소비자물가, 6월 외환보유액 및 5월 국제수지(잠정) 등이 발표된다.

로이터 사전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0.1%(5월 +0.1%), 전년 동월 대비 2.7%(+2.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3%(5월 +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고용지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7월5일 발표되는 월간 미국 고용 보고서를 주시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27만2,000명 증가하여 노동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준 바 있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으면 12월로 미룰 것을 시사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까지 완화되고 있다는 보다 확실한 신호나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예상외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조기 총선

프랑스는 6월30일 1차 조기 총선을 실시했고, 투자자들은 7월7일에 있을 2차 투표 결과도 주목할 것이다. 577개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50% 이상인 후보자가 없으면 12.5%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2차 투표에 진출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국가 지출 급증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린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RN)이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프랑스 국채의 독일 국채 대비 리스크 프리미엄은 조기 총선 발표 전보다 여전히 25bp 이상 높다. 프랑스 은행 주식들은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좌파 연합이 여론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RN보다 이를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 혼조적 M&A 시장

딜로직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글로벌 M&A 규모는 2023년에 비해 20% 증가했으며, 50억달러 이상의 거래는 53% 급증했다.

하지만 일부 딜메이커들에게 이는 잔이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6월24일 기준 거래 규모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15% 낮은 수준으로, 2009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부진했던 2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024년 2분기에 발표된 거래 건수는 지난 16년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M&A 활동이 중단되었던 2020년 2분기보다도 더 저조한 수준이다.

프랑스, 영국, 특히 미국에서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기업 이사회와 사모펀드가 결정을 재고하는 등 올해 남은 기간도 암울해 보인다.

일부 투자 은행가들은 마침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2025년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영국 총선

7월4일 영국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영국 주식과 국채가 상승하고 무역 가중치가 적용된 파운드 가치는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반등했다.

트레이더들은 보수당의 14년 집권 기간 동안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영국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유럽과의 무역 관계를 재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노동당이나 보수당 모두 해결 방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방대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고 재정연구 전문연구소(IFS)는 밝혔다.

경제 성장은 미약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는 6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 소득 대비 세금은 1949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세금 인상 없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고 투자자들은 정부 차입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스타머는 둘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신흥 아시아 인플레이션과 금리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중앙은행 목표치 내로 떨어졌지만 아직 정책결정권자들은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머뭇거리는 연방준비제도와 고공행진하는 달러로 인해 아시아에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태국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 수개월에 걸친 갈등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긴급한 금리 인하가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태국 중앙은행은 현재 금리가 여전히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세타풋 수티와트나루풋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4일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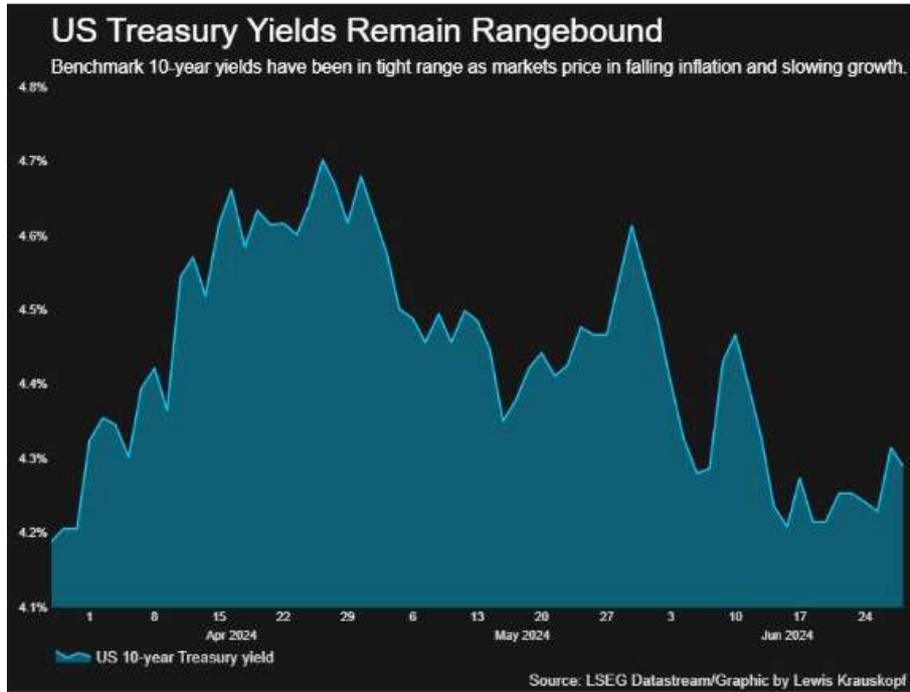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월간 고용지표 주목

뉴욕, 7월1일 (로이터) -

미국 월간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른 국채시장 변동이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6월 중순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시장이 소화하면서 약 4.20%에서 4.35% 사이로 반등했다.



내티스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전략가 가렛 멜슨은 "시장은 점진적인 연착륙은 보이지만 성장 공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안착했다"며 "다만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수익률이 최근 레인지를 뚫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5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고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27만2,000명 증가하여 노동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준 바 있다.

실업률은 4.0%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젠트러스트의 채권 책임자 휴 니콜라는 이번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으로 과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외에도 1일 미국 6월 제조업 PMI와 3일 서비스업 PMI도 시장의 관심을 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7월1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7월1일(월)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6월 수출입동향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18:3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 (21:30)
- ⊙ 한국은행: 총재 BIS 이사회 및 총재회의(6.27~7.1, 스위스 바젤)

7월2일(화)

- ⊙ 통계청: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외환시장 구조개선 현장방문 (10:00)
- ⊙ 기획재정부: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10:00)
- ⊙ 한국은행: 2024년 제11차(6.13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 ⊙ 한국은행: 부총재 2024 지역통계 발전 포럼(7.2~7.3, 부산)

7월3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6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금융감독원: 원장 증권회사 CEO 간담회 (09:30)

7월4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09:20)

7월5일(금)

- ⊙ 한국은행: 2024년 5월 국제수지(잠정)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7월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7월1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체 지수	2분기	12	11
7월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6월		50.1
7월1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6월	51.2	51.7
7월1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6월		36.2
7월1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6월	45.6	45.6
7월1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6월		51.7
7월1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6월	49.1	48.7
7월1-5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6월		1,231.6B
7월1-8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6월		3.070M
7월2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6월	2.5%	2.6%
7월2일	18:00	유로존	CPI NSA	6월		126.32
7월2일	18:00	유로존	실업률	5월	6.4%	6.4%
7월2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5월	7.900M	8.059M
7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6월		54.0
7월3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5월	-0.1%	-1.0%
7월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6월28일 주간		212.0
7월3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6월		63.816k
7월3일	21:15	미국	ADP 전미 고용보고서	6월	155k	152k
7월3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6월24일 주간	235k	233k
7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6월		55.1
7월3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5월		0.1%
7월3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6월	52.5	53.8
7월5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5월	0.1%	0.5%
7월5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MM	5월	0.2%	-0.5%
7월5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6월	195k	272k
7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6월		3.232T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1일 (일)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중앙은행 포럼서 연설 (2일 오전 3시)
- ⊙ 휴장국가: 홍콩, 캐나다 등

7월2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중앙은행 포럼 패널 토론 참석 (오후 10시30분)

7월3일 (수)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ECB 중앙은행 포럼 토론 참석 (오후 8시)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11-12일 회의 의사록 공개 (4일 오전 3시)

7월4일 (목)

- ⊙ 휴장국가: 미국

7월5일 (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인도 중앙은행 주최 행사에서 기조연설 (오후 6시40분)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美대선) - 첫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트럼프 무슨 말 오갔나

애틀랜타, 6월28일 (로이터) -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진 첫 토론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모욕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맹렬히 공격했다.

두 후보는 낙태, 이민,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및 경제, 그리고 심지어 골프 경기까지 거론하며 수개월 동안 사실상 동물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뒤흔들려고 노력했다.

선 목소리를 낸 바이든은 토론의 첫 30분 동안 여러 차례 말을 더듬었지만, 포르노 스타 스톰피 대니얼스에 입막음용 돈 지급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를 "중범죄자"라고 공격하면서 중반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입지를 찾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최근 바이든 아들 헌터가 총기 구입을 위해 마약을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잠시 후 바이든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의 전직 내각 멤버 대부분이 그의 캠페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들은 그를 잘 알고 있고 그와 함께 일했다"면서 "왜 그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는 걸까?"라고 말했다.

두 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이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복이 심했던 81세 바이든 후보가 앞으로 4년 임기를 더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유권자들의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바이든의 고르지 못한 연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안해했다.

한편 트럼프는 이민자들이 많은 범죄를 일으켰다는 주장과 민주당이 영아 살해를 지지한다는 주장, 그가 2020년 선거에서 실제로 승리했다는 주장 등 비난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은 그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해 온 거짓말이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을 공격한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전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이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비웃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미국 남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해 수많은 범죄자를 들여왔다고 말했고, 바이든은 "다시 한 번 그는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CNN에서 방영된 이 토론은 11월 5일 선거를 4개월 이상 앞두고 역대 어느 대선 토론보다 훨씬 일찍 열렸다.

서로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거의 숨기지 않았던 두 사람은 토론 전후로 악수하거나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때 두 후보는 골프 경기를 두고 언쟁을 벌였는데,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공을 더 멀리 친다고 자랑했

고, 바이든은 트럼프가 자신의 가방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 양극화된 국가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인들이 임금 상승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성과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으로 임기 초보다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 이후 "상황을 다시 정리"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관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제가 더 악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 간 양극화가 심하고 불안감이 깊어지는 시기에 열렸다. 지난 5월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3분의 2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지 거의 4년이 지난 지금, 선거 이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를 뒤엎으려는 노력을 포함하여 여전히 세 건의 형사 사건에 직면한 중범죄자 자격에 직면해있다.

바이든의 과제는 나이가 들면서 그의 능력이 무뎠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맞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 여론조사는 동물이지만, 바이든은 전통적으로 대선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격전지 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뒤쫓고 있다. 포르노 스타 스톰리 대니얼스에게 은밀한 돈을 건넨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모금이 급증한 트럼프에 비해 그는 재정적으로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5분의 1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나, 제3당 후보에게 기울고 있거나, 선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올해 선거 캠페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 전문가 반응) - 바이든·트럼프 대선 토론, 시장 영향은?

6월28일 (로이터)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27일(현지시간) 저녁 진행된 TV토론에서 낙태,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CNN에서 90분간 진행된 이 토론은 11월5일 선거를 4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 열려, 그 어떤 대선 토론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

다음은 이번 대선 토론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정리한 것이다.

◆ 앤드류 릴리, 시드니 배런조이 수석 금리 전략가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으나 미국 거래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예측 시장을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토론 시작 이후 약 55%에서 60%로 상승했다. 이것이 주식 시장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에 대해서는 큰 논쟁이 있지만, 채권 시장의 경우 컨센서스가 분명하다고 본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 시장에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래 여건이 얇고 실제 반응은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률이 올랐다."

◆ 매트 심슨, 씨티 인덱스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

"마치 스테이틀러와 월도프가 빙고 티켓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지난 한 시간 동안 월가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는 트럼프가 월가에 우호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나은 주장을 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으로 트럼프나 바이든의 굳건한 지지자들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며, 그 사이에 있는 이들도 거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시장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만, 지금은 그 힘이 사라진 것 같다."

◆ 레드먼드 웡, 삭소 중화권 담당 전략가

"시장은 중국 때리기가 선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중국 시장에 좋은 일이다."

◆ 차루 차나나, 삭소 통화 전략 책임자

"CNN 첫 미국 대선 토론이 열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은 여전히 주요 관심사이며 트럼프는 계획된 관세가 적자를 줄일 것이고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中 자금 유출에 압박받는 위안

상하이/싱가포르, 6월24일 (로이터) -

위안 약세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출은 중국 국내 투자자들이 자국 시장의 즉각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를 보류하고 수익률이 더 좋은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주 위안 가치는 7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중국으로의 주식 투자 자금 유입도 반전됐다.

애널리스트들은 본토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채널을 이용해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면서 홍콩의 위안 예금 비축량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연간 배당금 지급을 준비하면서 위안 약세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게리 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거시지표 개선을 앞두고 시장이 랠리를 펼치다가 지난 한 달 간 중국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본토 시장이 '투자 불가'로 여겨지던 시절에 비해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 침체 지원을 위한 당국의 추가 부양책을 수개월간 기다린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상하이 벤치마크 지수는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20% 상승하다 이후 6% 하락했다.

2월부터 시장에 복귀했던 외국인들 역시 이달 매도세로 돌아섰는데, 이달 주식 교차 매매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330억 위안(45억 4000만 달러)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 교차 매매제도를 통해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홍콩으로 1290억 위안이 유입됐다.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이 중국인민은행의 금리 완화 정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대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BNP파리바 자산운용의 치로 아시아태평양 수석 시장 전략가는 외국인 펀드가 현재 중국 주식에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긴 하나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중국 완화 조치는 18개월 동안보다 더 점진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달러/위안 고시환율은 당국이 약세 압력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절하를 허용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안 가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달러 대비 2.2% 하락했다.

◆ 홍콩으로 향하다

본토 자금이 홍콩으로 유입되면서 홍콩 내 위안 예금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4월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조900억 위안(1500억 달러)으로 지난 2022년 1월 기록한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BNP파리바의 주 왕 중화권 통화 및 금리 전략 헤드는 중국내 낮은 수익률과 추가 완화 기대감을 감안

해 본토 투자자들은 역외 위안에 대한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홍콩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으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과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통적인 6~7월 송금 수요도 역외 위안 매도와 홍콩 달러 수요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역외 위안은 5월 초 이후 홍콩달러 대비 1.9% 하락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정책 완화를 준비함에 따라 달러 금리가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홍콩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홍콩달러의 페그제로 인해 홍콩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BNP파리바 자산운용의 로 전략가는 "통화 페그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홍콩의 유동성에 매우 중요하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홍콩에 유동성이 넘쳐나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프랑스 채권 시장, 유로존 '주변국' 혼란 맞보다

6월28일 (로이터) -

최근 프랑스 채권 시장의 혼란은 정치적, 재정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일찍이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이 부채가 많은 국가들에게서 나타났던 변동성이 동반됐다.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에 패하며 조기 총선을 소집하기로 결정해 시장을 뒤흔들었다.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약 3.25%로 연중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고, 유럽 벤치마크인 독일 국채 수익률에 대한 프리미엄은 적어도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프랑스는 현재 유로존의 저위험 '핵심' 국가로 여겨지던 벨기에와 함께 재정 적자로 인해 유럽연합(EU)의 징계 조치를 받고 있으며, 과거 예산 후발주자였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무사한 상태다.

'핵심'과 '주변'이라는 용어는 유로존 국가부채 위기 동안 일상화되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나 투자 관점에서 부유한 북쪽 국가와 부채가 많은 남쪽 '주변' 국가를 구분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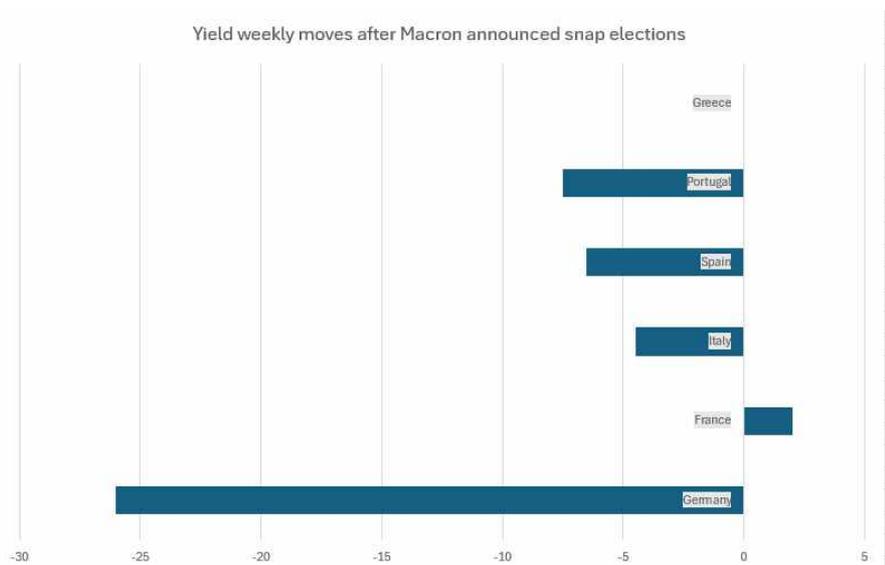
'주변부' 채권은 종종 어떤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면 격렬한 투기 거래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유로존의 부유한 경제 중심부의 수익률 스프레드는 확대된 반면, '주변부' 국가들은 위기 이후 부과된 엄격한 부채 감축 규정을 고수하면서 대부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이 그룹 중 스페인만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된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축소됐다. 반면 기존 핵심 멤버들의 스프레드는 모두 확대되었으며, 프랑스가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의 이코노미스트 펠릭스 페더는 "프랑스 국채는 점점 더 '핵심' 자산이 아닌 '주변' 자산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분이 유로 위기 당시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프랑스 채권이 더 큰 변동성, 경기민감성, 독일에 대한 지속적인 스프레드 확대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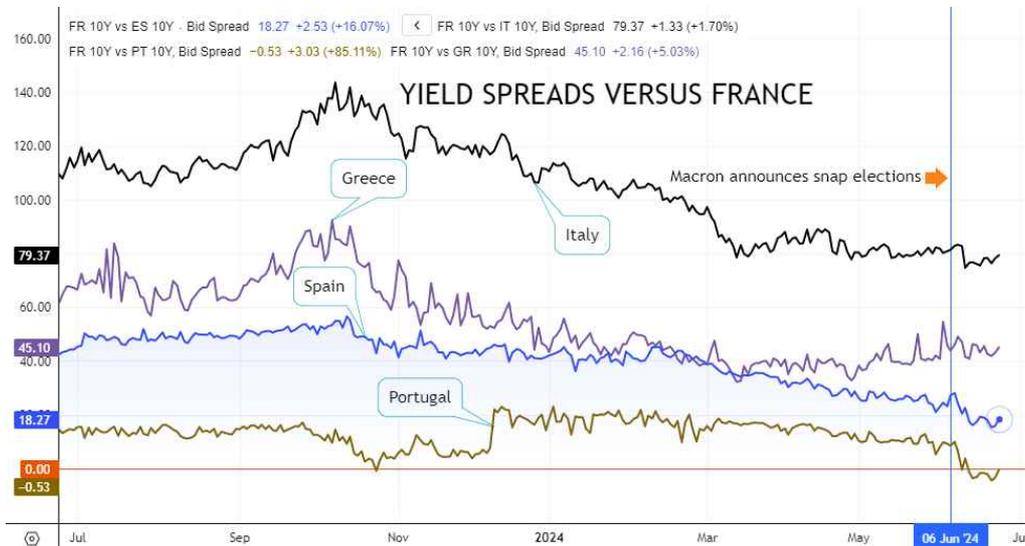
독일과 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는 마크롱의 조기 총선 발표 다음 주에 82bp까지 급등했고, 프랑스 재무장관은 더 큰 위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는 약 77bp로, 같은 핵심 회원국인 벨기에 64bp, 오스트리아 56bp, 네덜란드 33bp에 비해 높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스프레드를 대부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자들의 고수익 자산 선호, 특히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덕분이다.

픽텟 자산운용의 글로벌 채권 책임자인 안드레스 산체스 발카자르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상황에서는 현금을 능가하는 자산을 찾기가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안정성은 일부 주변국이 시행한 신뢰할 수 있는 부채 감축 전략과 잠재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스프레드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중추적인 역할 덕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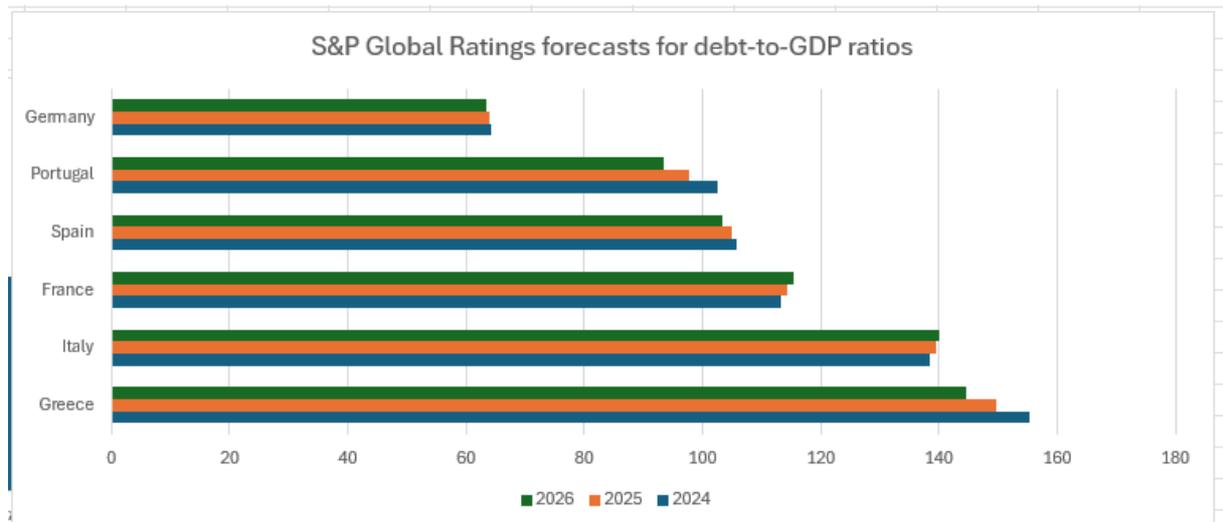
◆ 정치적 초점

오는 20일 프랑스 1차 조기 총선을 앞두고 마린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NR)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국가를 지속불가능한 부채의 길로 이끌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여러 RN 당원들은 한 국가의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유럽의 재정 규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프랑스는 현재 5.5% 수준이다.

바클레이즈는 RN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프랑스 국채 스프레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씨티 전략가들은 극우 또는 극좌 정부가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공약을 내세울 경우 프랑스 국채의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100bp까지 확대돼 이탈리아의 독일 국채 대비 스프레드인 약 156bp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요 채권 투자사인 핼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콘스탄틴 베이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스프레드가 좁혀진 것을 볼 때 유로존의 핵심과 주변부 사이의 포지셔닝에 대해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 궤적이 지속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이 프랑스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유로존 발행국에서 정치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고 말한다.

포르투갈의 중도 우파 소수 정부는 2025년 예산안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스페인에서는 유럽의 회 선거에서 중도파 정당이 극우를 억눌렀지만, 중도 좌파 정부는 사회 지출 증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픽텟의 산체스 발카자르는 "둘 다(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프레드) 15~20bp의 축소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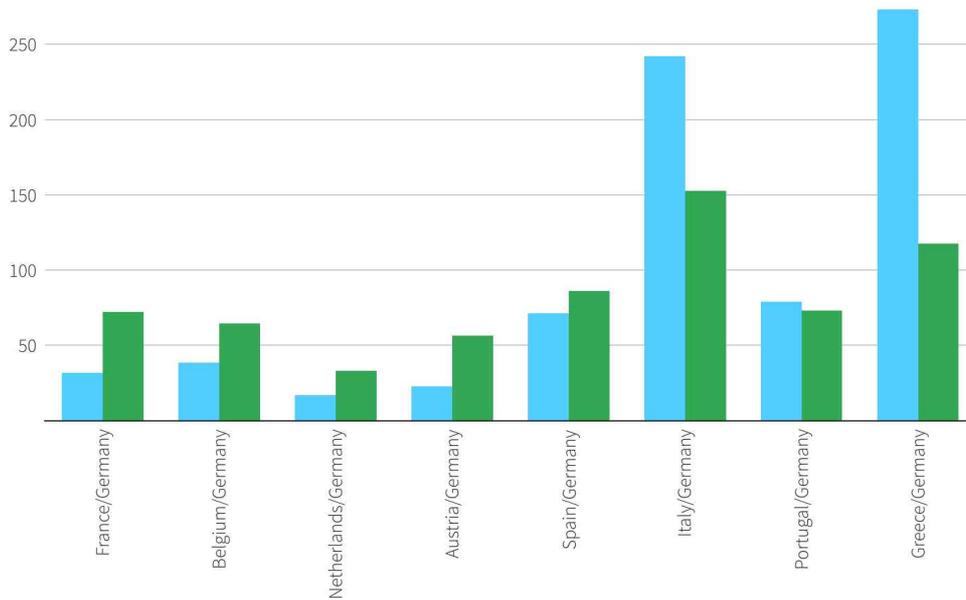
프랑스는 현재 재정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최악의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UBS의 유럽 금리 전략 책임자인 레인아웃 드보크는 "결국 프랑스의 유동성과 글로벌 안전자산 특성으로 인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비해 독일 대비 스프레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ore or periphery?

The premium investors want to hold debt other than Germany's has increased for the euro zone's rich economies and dropped for its former 'problem children'

● 'June 2019 ● 'June 2024



Note: Difference in 10-year government bond yields vs Germany in basis points
Source: LSEG/Reuters - Amanda Cooper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프랑스, 유로화의 다음 시험대 될 듯

프랑크푸르트/파리, 6월26일 (로이터) -

지난 2016년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었던 장 클로드 융커는 프랑스에 EU의 예산 규칙에 대한 여유를 주기로 한 결정을 "프랑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유로화를 거의 침몰시킬 뻔한 부채 위기를 견디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처럼 부채가 많은 소규모 국가들이 급격한 긴축 조치를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와중에도 그러한 인내심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의 조기 총선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유로화 프로젝트의 근간을 시험할 수 있는 유로에 회의적인 극우 정부가 파리에서 탄생한다면 프랑스의 예외주의에 대한 관용은 끝날 수 있다.

마린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RN)은 프랑스 예산을 파탄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로존의 새로운 예산 규칙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출 계획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융 시장이 프랑스에 손을 들어줄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베렌버그의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한 국가가 규칙을 무시하고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유로의 미래 가치와 유로의 미래 결속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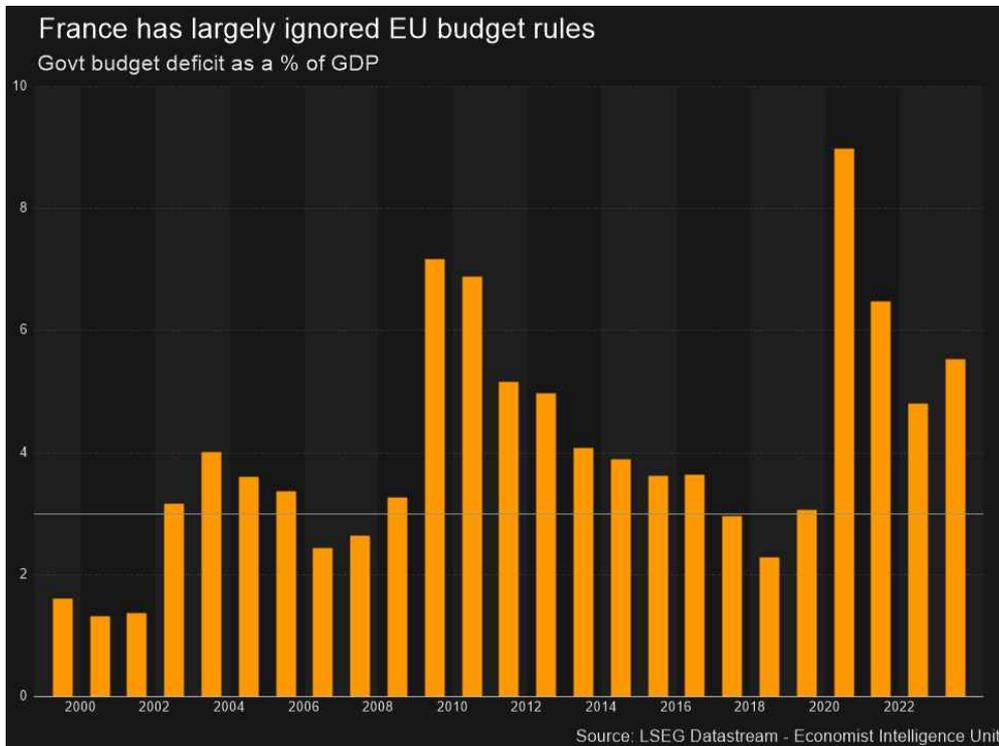
이러한 우려는 목요일 EU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6월30일 시작되는 프랑스 조기 총선 여론 조사에서 RN이 우세를 보이고 있어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 동료 지도자들은 이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독일 정부 고위 소식통은 마크롱의 조기 총선 결정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이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인-아웃'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실패한 도박을 한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로마에 본사를 둔 정치 리스크 컨설턴트인 폴리시 소나의 프란체스코 갈리에티는 프랑스의 위기가 알프스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ECB의 초대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유로화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오마르 이싱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부채를 "유로존에 걸쳐 있는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에서도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중앙은행 총재는 모든 회원국이 EU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더 이상 방종은 없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확실한 과반수가 되든 안 되든 최대 정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약 5.1%에 달하는 프랑스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두 곳의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프랑스의 재정 신뢰도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마크롱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프랑스는 EU 규정이 시행된 이후 25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EU가 정한 3%보다 더 큰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런던 퀸메리 대학교의 경제학자이자 "프랑스의 병은 무엇인가?"의 저자인 브리짓 그랜빌은 1990년대 독일이 보다 완전한 정치 연합에 대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재정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려는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N이 집권하면 브뤼셀을 만족시킬 만큼만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필립 레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프랑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무질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중앙은행의 개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심스러운 분위기

전문가들은 좌파 정부가 재정적, 정치적 압력에 무릎을 꿇은 그리스부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예산안을 발표한 후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해야 했던 영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지적하며 프랑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ECB가 유럽연합의 재정 체제를 존중하는 다른 국가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프랑스 위기로 인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고립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 ECB 정책 입안자인 에발트 노보트니는 "물론 프랑스 문제가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에 어떤 종류의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프랑크푸르트가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한 EU 관계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22년에 당선된 후 반 EU 수사를 완화한 로마를 파리의 모델로 꼽았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분쟁에 대한 EU의 입장에 대한 그의 지지와 함께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전망치를 거듭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와 금융 시장의 편에 서는 데 도움이 되었다.

브뤼셀의 브뤼겔 경제 싱크탱크인 브루겔 경제연구소의 제로민 제텔마이어 소장은 지금까지 RN의 수사가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와의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극우파가 주요 부처를 운영하게 되면 에너지 시장을 개혁하고 녹색 전환을 진전시키며 자본 시장을 개혁하여 블록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EU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극우파가 당선되면 EU 정책 결정의 대부분에 관여하는 정부 직책을 장악하게 되므로 EU 통합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美,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의 인터넷 및 클라우드 위험 조사

워싱턴, 6월25일 (로이터)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클라우드 및 인터넷 사업을 통해 미국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익숙한 세 명의 소식통이 말했다.

이 회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국 인터넷 트래픽을 도매로 라우팅하는 등 여전히 미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거짓 구실로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권익을 계속 옹호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 - 中 바이트댄스, 브로드컴과 협력해 첨단 AI 반도체 개발 - 소식통들

베이징, 6월24일 (로이터) -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사인 브로드컴과 협력하여 고급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밝혔다.

바이트댄스와 브로드컴이 개발하는 AI 칩은 5나노미터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제조 작업은 대만의 TSMC에 아웃소싱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은 또 이번 AI 칩은 미국 수출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 반도체 이슈의 민감성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식통들은 바이트댄스가 기존 사업 파트너인 브로드컴과 제휴하면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하이엔드 칩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SMC는 올해 새로운 칩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그들은 전했다.

바이트댄스와 브로드컴은 거둬진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TSMC는 논평을 거부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글로벌 투자자도 제3자 FX거래 동참... 韓 외환구조 개선안 시행 준비 '순항'

서울, 6월2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내달 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안의 공식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3자 FX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제3자 FX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환전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국민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RFI로 등록된 도이치런던과 한국 국고채 투자 헤지를 위한 FX스왑 거래를 체결해 제3자 FX거래 개시를 알렸다.

이후 도이치은행은 글로벌 투자자를 상대로 제3자 FX거래를 체결하면서 관련 거래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홍콩지점(RFI)은 26일 리얼머니 성격의 글로벌 투자자와 약 2천억원 규모의 FX스왑 거래를 제3자 FX거래 형태로 체결했다.

로이터통신은 SSBT은행을 통해 이 같은 거래가 완료한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자금 결제를 위해 원화차입을 하는 걸 허용한 데 이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 차입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외환당국자는 실수요가 확대되려면 제3자 외환거래가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사안들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RFI가 들어와 연장 거래를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제도 작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기준 RFI로 등록된 기관은 총 29개 기관이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외인, RFI 환전후 국채통합계좌 직접 송금 허용... 레포 등 원화 결제 가능 - 기재부**

서울, 6월26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투자하려고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할 때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조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ICSD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인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처음 한국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에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를 할 때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국환거래법령상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하게 허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외국인투자자가 ICSD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외국인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해 결제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 '외국환거래규정'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이미 행정예고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례 조치들이 ICSD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승규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국채통합계좌 첫 거래 씨티은행 통해 100억원 규모로 진행 - 예탁원**

서울, 6월28일 (로이터) -

지난 27일 개통된 국채통합계좌의 첫번째 거래는 씨티은행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가 밝혔다. 규모는 100억원 수준이다.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외국인은 앞으로 원화 국채에 투자할 때 투자자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임승규 기자; 편집 문윤아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美 유권자들 “경제는 트럼프, 민주주의는 바이든” -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워싱턴, 6월26일 (로이터) -

미국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경제에 있어 더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확인됐다.

23일까지 3일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1월5일 대선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한 후보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바이든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와 동률을 이뤘던 5월의 36%에서 37%로 소폭 상승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그의 나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지지에 대한 당내 반감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에 대해 두 후보 중 누가 더 나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들은 43% 대 37%로 트럼프를 선택했다.

이민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44% 대 31%로 더 큰 우위를 보였다. 2022년 이민자 비율은 13.9%로, 한 세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해외 분쟁과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40% 대 35%로 더 선호되는 후보로 나타났다.

반면 바이든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39% 대 33%로 트럼프보다 우위를 보였다.

바이든은 의료 정책에서도 트럼프보다 40% 대 29%로 우위를 점했다.

이전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격전지 주에서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